

영어어문교육 창간호 1995

이론과 실제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율적인 영어학습

임 병 빈

(공주대학교)

Im, Byung-Bin. (1995). Optimal learning in English through dynamic coopera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 1~20 .

Nowadays in Korea the subject of English education has been rising as one of the essential matters which need to be emphasized, reorganized, and thus refined. From the history of about one century to the current, English education may be compared to an adolescent who should be paid much more attention to grow as an independent adult. Although we recognize that there was much improvement in the past age of English education, a lot of assignments to solve await us.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recipe for optimal learning in English classes by linking theory with practice: First, the nation-wide academic associations of English teaching should act more energetically and cooperatively than ever. They need further specialization, dynamic participation, and systematic organization. At the same time the academic journals of their own should be publicized broadly, internationally as well as nationally. Second, there should be close contact and discussion between professors and secondary-school teachers. To achieve better learning in English classes, an effective cycle of equilibrium ought to be maintained by combining theory with practice. For example, language institute in universities/colleges can serve instructional programs such as lectures, colloquiums, and intensive courses for conversation. Third, native speakers of English should be positively utilized. Teachers had better keep close contact with native speakers as frequently as possible if they want to become fluent or at least acceptable speakers in English. Teachers may also use native speakers as aides in their classes.

1. 서론

대략 구한말부터 이 땅에 영어교육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여 약 10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비교적 짧지 않은 역사의 흐름속에서 그 동안 한국의 영어교육은 나름대로 성숙하여 발전을 거듭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성장기에 접어든 한국의 영어교육을 한층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쳐 충실한 연구검토와 그 분석결과의 실천적 수행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론과 실제」 즉, 현장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등영어교사와 이론연구자인 대학교수 사이에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통하여 종전보다 나은 효율적인 영어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과거 어느 시대보다 영어교육의 필요성과 그 내실이 요청되는 시대에 처한 우리에게 국내적으로는 '세계화'라는 진부한 용어가 다시 고개를 내밀고 나름대로는 다방면에 비중을 두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슬로건으로 등장하였다. 근자 몇년안에 진행되어온 영어교육의 국내적인 교육정책 및 사회적 경향을 살펴보면, '97년부터 실시예정인 '국민학교 영어교육', 대학입학을 위한 과거 학력고사 형식으로부터 수능능력시험으로의 전환에서 치루어지는 '수능영어시험', '영어교사 해외연수파견', 교과 교육연구회 활동지원정책에 따른 '영어교사연구회활동' 교사 임용고시에서의 '회화능력 반영', 제6차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의 언어사용기능별 전문화 교육지향에 의한 '교육과정 개편', 그리고 사회의 취직·승진시험에서의 '영어회화능력' 반영 등 여러가지 개선방안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들은 '사안에 따라 수십년 혹은 수년동안 개혁의 필요성을 논쟁해오던 산고의 고통을 겪은 결과로서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새로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휴먼기로서의 긴 겨울이 과거 우리의 영어교육 준비시기였다면, 이제는 가을의 알찬 수확을 위해 본격적으로 일할 준비를 갖추어야할 시기로 비유할 수 있겠다.

위에서 열거한 교육정책적 사회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결국 영어교육목표의 핵심인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proficiency)의 획득을 위해 영어를 배우려는 목적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목표에 근접해가려는 노력이 나타나 있다. 이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합쳐져 영어교육목표가 명목상의 목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실제적인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어느 면에서 보면 영어교육의 총체적인 요소 중 개별적인 사항들이 분리되어, 전문화 되어가고 발전을 촉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고 간주된다. 예를 들면 '현장연구 우수 논문공모 및 발표회'의 경우에 어느 논문이 매우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다면, 그것이 실제적 수업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절차들이 수반되어 가능한 한 많은 영어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즉 이론과 실체가 접목되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교육 효과를 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 교실수업 상황과 영어교육에 관련된 제반

이론 사이의 연계성을 통한 영어교육향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i) 영어교육 관련 학술단체의 활성화, (ii) 대학어학연구소의 교육·연수기능 강화, (iii) 대학교수·중등 장학담당자, 교사로 구성된 공동 연구활동, (iv) 원어민화자의 활용 극대화, (v) 교실수업과 이론의 상호작용.

I. 학술단체의 활성화

영어교육에 관련된 국내 학술 단체의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영어 학습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1. 현황

국내의 관련 학술단체로는 한국영어교육학회, 한국응용언어학회, 한국영어영문학회,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한국영어교육회 등을 손꼽을 수 있다.¹⁾

<표 1> 국내 영어교육 관련학회 조직일람표

학 회 명	회원수	설립연도	정기간행물명	정회원자격	국제교류현황
한국영어교육학회	473	1964	영어교육	석사학위 이상 영어교육 종사자	미국의 5개국 학술지 배부 및 연사초청 강연
한국영어영문학회	1650	1954	영어영문학	영어영문학 전공의 교육자	미국, 일본 학술지 교환
한국응용언어학회	300	1978	응용언어학	석사학위 이상	국제 응용언어학회(AILA)와 유대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180	1994	영어교육연구	석사학위 이상 중등영어교사	
한국영어교육회	336	1952	영어교육	영어교사 및 교수	

학회총람(학술진흥재단 1994자료).

위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신생학회(영어어문교육학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20~40년의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니오면서, 학회회원수에

1) 한국학술진흥재단(1994)에서 발행한 「학회총람」자료 및 학회지에 의한 것임.

있어서도 영어영문학회의 방대한 회원수를 갖고 있는 특별한 경우를 예외로 하더라도 충분한 활동이 가능할 만큼의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기간행물 발간에 있어서 「영어영문학」은 가장 먼저 계간지(quarterly)형식의 학회지를 발간해 왔으며, 「영어교육」도 금년부터는 계간지로 발간되고 있다. 회원의 자격에 있어서는 대체로 석사학위 이상 또는 동등의 영어교육 종사자를 정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다소 특색이 있는 점은 「영어어문교육학회」와 「영어교육회」에서 중등의 영어교사를 정회원 자격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학회회원 중 상당수가 영어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국제교류 현황에서는 학술지 「영어교육」과 「영어영문학」을 제외하고는 학술지 교환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중에서 「영어교육」은 비교적 활발하게 교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학술지들은 이 방면에서의 활동이 상당히 미약하거나 아예 활동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2. 개선점

앞절에서 살펴본 각종 학술단체들은 저마다 설립목표를 세우고 크개는 1000명 이상의 회원 수에서 적어도 약 200명 가까이 회원을 조직하여 학회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활동속에서 그동안 우리 한국의 영어교육을 오늘날의 위상으로 발전시켜오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영어교육의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면 교육과정 편성, 대학 입시 영어시험 평가제작, 대학 교양영어 교육, 조기 영어교육, 언어기능별 교수학습지도 방법등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여러 방면에서 팔목할 만한 기능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신상순(1994)은 '한국영어교육학회 30년사'에서 학회의 성장과정을 (i) 학회설립 전야, (ii) 여명기, (iii) 성장기로 나누어 회고하였다. 그는 회고의 글에서 이제 '영어교육학회'가 어엿한 성장 궤도 위에 올라와 있으며 그동안 한국의 영어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논술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영어교육학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영어영문학회'를 비롯한 타 학회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각자의 몫대로 기여한 바가 인정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 상당한 역사 속에서 성장해온 우리의 영어교육 관련 학술단체들이 좀더 전문화되고 능동적인 활동을 수행하여 변화하는 국제화 사회 속에서 영어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 능력 획득에 견인차 역할을 맡아야 할 시기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개선책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학술단체간의 연계성을 통하여 보다 큰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영어교육 발전을 목표로 삼아 개별 단체들을 연합시킨 전체적인 학술단체(가칭: '한국영어교육총연합회' 또는 '한국영어교육협의회')의 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모체로 하여 각 학술단체 상호간에 협조와 참여를 조장시

키면서, 한편으로는 전문화적 차원에서 영어교육의 주요 현안 및 과제들을 영역별로 설정하여 각 단체에게 연구과제를 지정해주고 훌륭한 연구결과는 전체적인 학술단체 모임에서 발표회와 연구논문 발간을 실시해 봄으로써 종전의 폐쇄된 개별단체 성격의 학술단체 활동에서 보다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영어교육정책 담당자에게 정책적 개선안이나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도 병행함으로써 명실공히 영어교육 발전을 위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학술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영어교사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학술단체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 학술단체들이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학술적 측면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지닌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야 함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영어교육 현장에서 보면 일선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의하여 교육성고가 좌우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Brown(1994)이 지적하고 있는 '이론과 실제' 간에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아무리 좋아보이는 이론 또는 기술(techniques) 일지라도 그것을 현장 수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무모한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다. 따라서 대학교수와 중등교사 사이에 충분한 토론과 실험적 과정을 거쳐 검증되어야 하며, 그러한 결과 또한 교육 상황에 따라 변용되어야 할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볼 때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성의 기대치가 높은 영어교육 발전과정의 연구들은 대학교수 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중등 영어교사들의 폭넓은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함께 연구하고 실험해 봄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셋째, 각종 연구결과 발표회나 발간물이 널리 홍보되어야 한다. 그동안 각 학술단체들이 국내적으로 많은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있는데 이 방면의 활동을 더욱 신장시켜야 하겠다. 그리고 중등 영어교사들도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사 연수 차원에서 일년중 최소 5일 이상 '연수연가' 근무처리를 하여 연수활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장수업에 적용 가능한 '우수 연구사례' 연구물을 발췌하여 전국적인 영어교육 종사자에게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연구물을 입수할 수 있는 대책도 요구된다. 뿐만아니라 각 학술단체의 영문판 정기간행물을 국제적으로 배포하여 학술단체들의 국제적인 권위 신장을 높이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요청된다.

Ⅱ. 대학부설 어학연구소의 활용 방안

전국적인 소재의 각 대학 부설 어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영어 교육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론전달자(교수)와 수업담당자(중등교사) 그리고 장학행정담당자(장학사, 연구사)간의 상호협의체(colloquium)를 조직하여 영어교육의 현안 문제를 토론하며 내실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

장 교육에 이용한다.

1. 대학 어학연구소와의 유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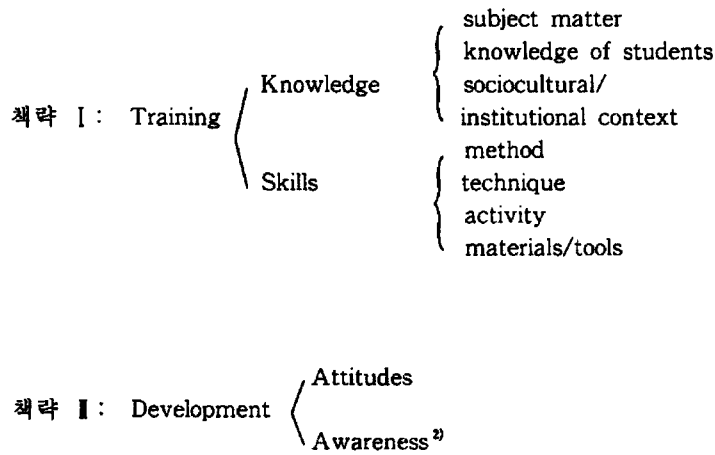
어느 지역이든지 인근에 소재한 각 대학 어학연구소와 중등학교 영어교사 단체가 유대를 맺어 협의체를 구성한다. 먼저 대학 어학연구소는 영어교육 분과위원회를 편성하여 영어교육의 문제들을 지도 조언할 수 있는 교수들로 분과위원회를 선임한다. 정책적으로 볼때 세계화 국제화라는 대전제에서 국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내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 지방자치단체 기관(시·도·군의 지방행정 책임자와 교육청 책임자)으로부터 행정 및 재정지원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대학어학 연구소는 '지역 영어교육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설운영 한다.

한편, 각 지역 중등영어교사 단체 또는 개별 교사들은 대학의 영어교육 향상을 위한 언어기능지도방법, 영어평가방법 교과과정 운영, 교수자료의 준비와 제시방법 등에 관한 각종 세미나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어 수업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Richards & Nunan(1993)에 의하면 영어교사들은 우선적으로 다양한 수업기술을 터득해야하고 동시에 이러한 기술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이론들도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Freeman(1989)은 교사교육프로그램이 일관성이나 체계성이 없는 교육적 가정과 근거에 의하여 불분명하게 자의적으로 수용된다고 진단하면서, 언어 교수학습에 관한 분명한 이론적 기초의 결여로 인하여 교사교육이 불완전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사와 교사에게 지도 조언해줄 수 있는 협력자(collaborator)와의 유대를 통하여 교육의 본질을 파악하고 수업과정을 분석하며 나아가서 보다 나은 수업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교사 자신의 총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통찰력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Freeman(1989: 43)은 이러한 주장을 다음의 <표 2>와 같은 단계로 구조화하고 있다.

<표 2> 교사연수의 두가지 책략



제1단계 책략(Training)에서 직접적이고 분석적인 지식(knowledge)과 기술(skills)을 훈련시키고, 다음의 제2단계 책략(development)에서 복합적인 교수요소에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교사연수 협력자(collaborator)가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교수를 재고하고 분석 평가하며 세련화시키는 간접적·종합적 과정으로 유도해 준다. 즉 교육의 바람직한 변화를 초래하기 위하여 두가지 책략의 조화와 통합을 충분히 고려한 직접적인 훈련과 함축적·암시적인 투입에 의해 교사 자신의 내재적인 의사결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연수(자격·일반·연수과정)체제의 보완책으로서 각 대학 부설 어학연구소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인 영어교육 향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관하여 몇가지 제안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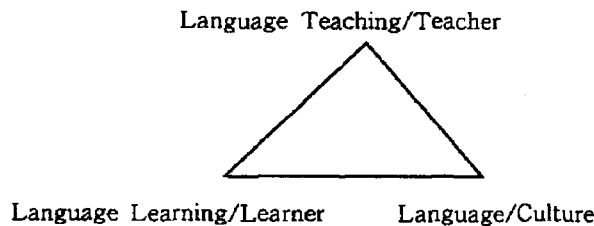
우선 앞에서 언급한 대학 자체의 영어교육 담당자 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 및 대학 자체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이 예산을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할 인적 요원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많은 참여자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일선학교,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론과 실제간

2) 'Awareness'의 의미는 어느 것에 제공되는 주의력(attention)을 인식하고 모니터하는 능력으로서, 위 <표 2>의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및 태도(attitudes)에 주어지는 주의력을 촉발시키며 통솔한다(Freeman 1989:36의 Fig. 1참조).

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학의 교수자와 중등 교사간에 서로에게 필요한 지식과 수업기술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 현직 교사들의 수업 부담과 근무여건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 및 토론회 등의 시간은 토요일이나 야간 또는 방학기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수업결손을 덜기 위하여 단위 학교별로 1인씩 차출하여 활동에 참석시키고 교대로 참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교육행정 차원에서는 이러한 대학 여학연구소 주관의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총 교육시간의 일정한 시간 참여자에게는 기존의 연수교육제도 중 상응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정책적 배려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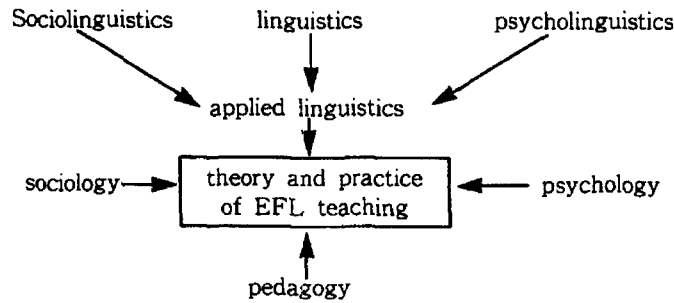
2. 대학교수, 중등영어교사, 장학담당자 사이의 협력활동

EFL 교육상황에서 교육의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도 일반적인 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사, 학습자 그리고 교육내용(언어)의 3요소적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Larsen-Freeman(1983: 3)이 제시한 다음의 <도 1>과 같이 언어교육의 총체적 요소를 포괄시키면서 3요소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의 총화 속에서 교수이론과 교수방법이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도 1> 언어교육의 3요소

한편, 언어교육의 교수이론과 실제적 수업지도에 관련되는 다양한 요소들과의 학문분야간 연계성 차원에서 Broughton, et al.(1980: 38)은 다음의 <도 2>와 같은 인접 학문분야를 구조화하고 있다. 영어교육분야에 관련된 인접 학문적 지식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여 실제적 경험과 조화시킴으로써 교육목표 성취를 위한 적절한 교수방법의 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도 2>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련된 인접 학문

본질에서는 언어교육의 3요소인 언어교수자의 측면에서 영어교육의 보다 활력적인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교육현실에 비추어 내실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과거 10년전의 근무여건보다는 여러가지 면에서 개선된 바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영어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간 수 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여 현재는 대폭 감소된 형편이다. 또한 교사의 사무분장 면에서도 간소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교사의 주임무인 양질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에 우리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하여 대학교수, 중등교사, 교육장학 담당자 사이에 협력을 통하여 학습자의 학업에 종전보다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업활동 방법을 전개해야 하겠다. 먼저 당사자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 영어교사협의회를 모체로 하여 대학교수와 장학담당자를 포함시켜 영어교육의 현실적 문제(수업방법, 평가기술, 교수자료 활용, 언어기능별 지도방법 등)에 관하여 월별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학에서는 선정된 주제에 대하여 국내외의 이론적 동향을 소개하고 성공적으로 검증되었거나 예상되어지는 실험사례에 대해서도 전달한다. 이에 대하여 중등학교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경험에 비추어 현장 수업에 실시하였거나 앞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토의한다.

둘째, 위와 같은 토론 및 제시과정에 장학담당자가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결론을 현장 수업에 반영해 볼 수 있도록 장학측면에서의 협조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월례 세미나에 대한 주제 선정은 대학·중등교사·장학담당자 사이에 의견조정을 거쳐 확정하고 일정표를 계획하여 발표한다. 주제별로 대학의 관련학자를 참여시키고 중등교사측의 토론자 또는 수업사례 보고자는 필요한 기준에 의하여 사전에 선발 참여시킨다.

넷째,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과 관련단체의 지원을 받는다.

Ⅳ. 원어민화자의 활용 극대화

언어의 일차적 기능인 ‘말(speech)’에 의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함은 영어교육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필요성의 근거를 살펴보고 원어민화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언어사용에 의한 의사소통 능력 학습의 필요성

영어교육에 있어서 근자의 주요한 관심은 종래의 문장단위 문법 중심으로 부터 발화 (utterance) 및 담화 (discourse)의 영역으로, 정확성과 더불어 유창성을 지향하고, 언어용례(usage)로 부터 언어사용(use)중심으로 전환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Widdowson 1984). 이러한 주장이 출현한 까닭은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언어능력 중심체계에 의해서는 언어사용의 실체를 학습하거나 습득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Hymes (1972), Canale & Swain(1980), Bachman(1990), Berns(1990) 등이 제안하는 의사소통 능력의 실체를 외국어 교육에서 반영할 필요성을 지닌다. 즉, 언어적 능력 외에 사회언어학적 요소, 심리언어학적 요소, 화통론적 요소 및 지식구조 (knowledge of the world)가 통합되어 맥락상황³⁾에 적절하게 통용될 때 의사소통이 비로소 효율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보고있다(Brown 1994:228). 따라서, 종래의 지식적인 언어능력으로부터 의사소통 능력에서 강조하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수행될 수 있도록 언어사용의 실제적·수행적과정에 점차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오고 있다.

국내에서 영어교육의 정책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96년부터 실시될 고등학교 ‘6차 영어교육과정’에서도 「영어회화」, 「실무영어」 교과가 선택과목으로 추가되고 있으며, 영어회화 능력 신장을 위하여 조기영어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학교에서도 영어교육이 실시될 상황에 처해있다. 뿐만아니라 고교입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일정 비율의 영어듣기평가시험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고교 영어학습에서 회화능력의 신장을 유도하고 있다. 회화능력의 강조는 이것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금년부터 실시될 「교원임용국가고시」에서도 영어교사 임용을 위한 수험생들에게 회화 능력을 측정하려

3) 책략능력(strategic competence)이 긴밀하게 작용하는 바, 이 책략능력이 상대방으로부터 의도된 것을 청자와 독자에게 식별가능한 의사소통 행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어 준다(Yule & Tarone 1990:181 참조).

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지역(서울·경기)도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타시·도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당면하고 있는 까닭에 중등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연구인 김덕기외(1992), 박용현외(1994), 임병빈(1994)등에서도 종래의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과교육에 관한 이론 및 실습의 강조와 영어사용기능(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체계적인 교육을 비중있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옹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외적인 영어교육의 흐름에서 볼때 무엇보다도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함이 일차적 과제라고 볼때, 영어교사 자신이 먼저 학습지도에 필요한 만큼의 능력을 구비해야 하겠다. 물론 요즘 많은 회화학습용의 상업적 교수자료와 시청각 보조매체들이 유통되고 있다. 이 방면에 대한 직·간접적인 교육기회를 스스로 갖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원어민화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대화를 통하여 의사소통기술을 훈련시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2. 원어민화자와의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능력 증진

우리의 영어교육상황은 제 2언어로서의 영어(ESL)가 아니고 외국어로서의 영어(EFL)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숙달시키는데 매우 커다란 어려움이 부과된다. 과거시대에 비하여 오늘날 점차 개선되어지고 향상되어가는 과정임에는 틀림없지만 다 방면에서 이에 대한 노력을 집중시켜야 하겠다. 앞에서도 열거한 바와 같이 입시제도에서 '영어 듣기 능력평가도입', '국민학교 영어교육과정 신설', 고교 교과목에서의 '영어회화'교과 신설 등을 통해서 구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하여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것 같다. 뿐만아니라 라디오, 텔레비전의 방송매체를 통한 각종 영어회화 교육용 프로그램을 송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어회화 교육을 보급하고 있으며 영어회화 학습을 위한 많은 교수자료도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대체로 간접적인 영어회화 교육 수단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대화 당사자인 청자와 화자가 특정 상황에 처하여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전달 메시지를 교환하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배우는 우리의 현실에서 위와 같은 간접적인 학습방법에 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것도 현실이다. 그렇지만 영어교육 종사자인 중등 영어교사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원어민화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구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켜야 하겠다. 다행스럽게도 국가의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사회주변에 영어사용국 원어민화자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교사의 해외 연수 파견 또는 영어회화 교육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실시, 또는 원어민화자의

각시도 교육청 배치⁴⁾ 등에 의하여 교사의 회화교육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적 상황에 입각하여 원어민화자를 통한 영어교사의 회화능력신장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근대학의 영어교육과, 영어영문학과 및 어학연구소에 소속된 원어민화자를 활용한다. 교사 개인별 또는 집단으로 원어민과 접촉하여 대화를 통하여 실제적 상황에서의 영어 표현·이해능력을 숙달시킨다. 또한 충남교육청의 경우에서처럼 시·군 교육청에 파견된 원어민화자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각 지역 소재지에서 활동하는 원어민화자와 접촉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교사 자신이 영어 구사력을 갖춘 후에 자신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다면, 수업 보조자로서 원어민을 교실로 참여시켜 다양한 수업활동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정에 따라서 매주 또는 격주 1회의 영어수업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어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흥미와 학습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으며 단조로운 영어 수업의 구태에서 일탈한 활력적인 수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원어민화자와의 접촉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 화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인에게 쉽게 청취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성별·연령·학력수준·문화배경 등에 있어서 개인차가 언어로 표출될 수 있고, 언어학적으로도 음성학적, 통사적, 비언어 전달수단(non-verbal communication)⁵⁾상의 개인차가 담화중에 출현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수의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이 유익하다. 바꾸어 말하면, 다양한 구두입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넷째, 영어교사가 자발적으로 각 대학 또는 사설학원의 원어민 강사에 의한 회화강좌를 수강한다. 대학의 경우에는 야간강좌와 방학기간의 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강좌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조달된다면 지역사회 봉사적 차원과 어학교육 발전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영어교사에 대한 회화능력 평가를 제도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교사에게 요구하여 영어교사 평정자료로 활용한다. 평가시험은 기존의 TOEFL 또는 TOEIC 형태의 회화능력 측정시험 방식을 이용하든지 공신력이 있는 기관 또는 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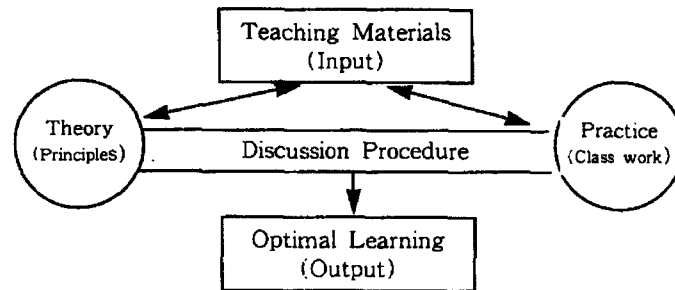
4) 충남교육청의 경우에 현재 각 시·군별로 원어민화자를 배정하여 현지 영어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5) 비언어 전달수단(non-verbal communication)은 동작학(kinesics), 근접학(proxemics) 그리고 여타의 준어어적 요소(paralinguistic features)로 요약될 수 있다(Brown 1987:5 참조. 여기에서는 주로 동작학에 속하는 몸짓언어(body language)를 뜻한다.

이렇게 제도화될 때 교사의 적극적 참여학습이 유도될 수 있고 그 결과 양질의 영어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V. 교실수업과 이론의 상호작용

본 연구의 목적인 현장 수업과 이론의 연계성에 의한 영어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인 연계성의 모형을 제시하며 이론적 관점 및 실제적 관점에서 각각의 지도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활용시안의 구성은 다음의 <도 3>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용된다. 이 모형에서 보면 일체의 교수자료에 의한 교육내용은 관련되는 교수이론과 실제적인 교실의 수업과정에서 상호간에 영향을 받으면서, 여기에 토론과정(discussion procedure)통로를 설정하여 수업과 이론의 연계성을 더욱 긴밀하게 작동시킨다. 이러한 절차의 출력으로서 학습의 극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도 3> 교실수업과 이론의 연계성에 의한 학습 극대화 모형

1. 이론적 관점에서의 지도방안

전문학자를 포함한 대학교수가 주체가 되어 언어 이론, 교수학습이론, 교수방법론, 교수학습평가이론, 교육과정이론 등의 매우 기본적인 이론 뿐만 아니라 언어사용기능 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능별 지도이론을 포함하여 영어수업의 실제와 중요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사항들을 이론제시 측면에서 소개한다.

2. 실제적 관점에서의 지도방안 토의 과정

전자의 이론적 주장이나 제안들에 대하여 현장수업 경험을 토대로 아마 실시해본 바 있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이 있다면 그에 입각하여 사례 보고 형태 또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제시된 이론

적 주장과는 별도의 대안을 제시해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론과 실제의 연결통로 속에서 보다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구체적 방안들이 정립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이들을 교실 수업에 효율적으로 응용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짐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도를 병행하여 궁극에는 보다 나은 교수학습 방안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토론절차는 각종의 영어교사 간담회, 연수회 등에 대학의 관련 전문학자가 참여하여 진행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영어교육 관련 학회의 기획토론회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어떠한 형식의 토론모임이든지 간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론 전달자와 실제수업 담당자 사이에 원활한 의견이 교환되어야 한다. 특히 영어수업의 주체인 중등교사들의 실제적인 수업경험과 판단에 입각한 실용적인 지도기법들이 충실하게 검토되고 제안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써 영어학습의 극대화에 커다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현장수업 적용사례

교실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 몇가지를 예시적으로 제시해봄으로써 이론과 실제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어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1) 낱말게임

모든 언어습득 및 학습의 주요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 즉, 목표어에 의한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언어사용의 문제를 고려할 때, 이러한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낱말게임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된다. 게임놀이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자의식으로부터 탈출해서 게임을 통하여 흥미에 대한 자극을 받게 되고 적절하게 안내되는 게임은 교도의 동기화를 촉발시키는 수업기술이 될 수 있다.

McCallum(1980)은 *101 Word Games*라는 저서에서 다양한 낱말게임을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교실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만 제시해 보기로 한다.

I'm Going to Take a Trip

Objective : To provide practice in *What questions* and statements with the *future be + going to*.

Language level : intermediate

Equipment and material: blackboard

In this game the students may remain seated at their desks. The first student begins the game by saying, "I'm going to take a trip to Africa. What am I going to do there?" The second student must answer the question with a verb and noun which begins with the same letter as the name of the place previously stated. For example: "You're going to answer advertisements in Africa."

The second student then asks a question concerning a place beginning with the letter B. For example, "I'm going to take a trip to Brazil. What am I going to do there?" The third student replies, "You're going to buy bananas in Brazil." He then asks a question with the letter C, to which the fourth student responds, and so on around the room.

If the teacher prefers, the students may choose any letter they wish, not necessarily in alphabetical order. However, they should be warned not to repeat a place name that has been given before.

The first time the game is played the teacher should write suggestions on the blackboard—a list of place names, verbs, and nouns.

2) 읽기 : 지속적묵독(SSR: Sustained Silent Reading)과 학습자에 의해 선택된 책읽기(Pleasure Rea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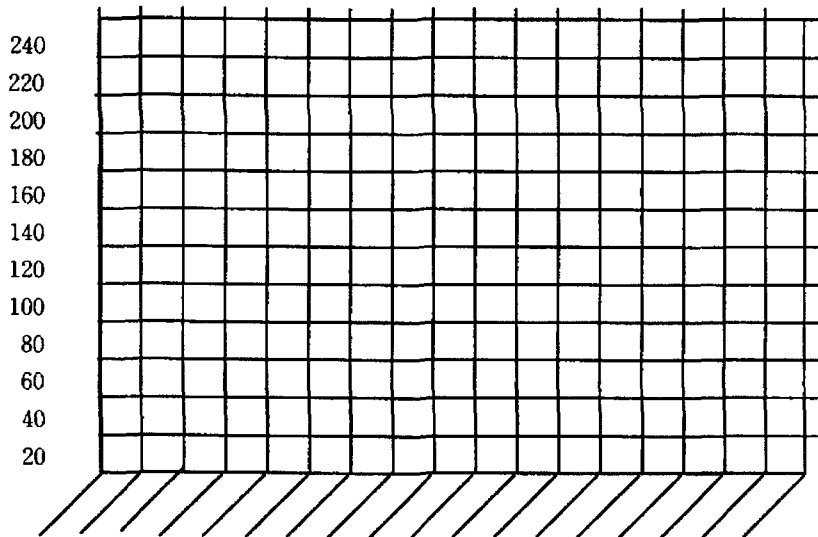
매 수업시간 중 일정시간(5~10분 내외)을 배우지 않은 범위의 교재 내용 또는 학습자 자신이 선정한 책을 다독(extensive reading) 형태로 읽어가는 동시에 방과 후 과제로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독서하는 습관을 기른다. 이러한 지속적인 묵독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Mikulecky 1990:18).

- i) 독서 날짜, 읽은 페이지 수, 소요시간을 중심으로 독서기록을 누가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자료를 그래프로 만든다.
- ii) 교수자는 학습자의 SSR 과정에 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독해력 향상을 도모한다.
- iii) 일주일에 1회 정도 학습자와 만나서 독서한 분량 내용등에 관하여 면담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킨다.

학습자 스스로가 책을 선정함으로써 독해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고 배경 지식의 도움을 받아 독해력 향상이 촉진된다. 따라서 학교 전체적으로 또는 학급 단위로 영어로 쓰인 다양한 소재의 책들을 구비하여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마련하면 좋겠다. 다음의 <도 4>는 Mikulecky(1990:59)가 제안한 읽기향상 점검표(Reading for pleasure Progress Chart)이다.

Reading for Pleasure Progress Chart

Book Title _____
 Author _____
 SPEED
 in wpm



3) 듣기

정규교과과정에 의존해서만은 듣기기능을 숙달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영어수업담당자는 보조적인 교수자료를 준비하여 수업에 이용함으로써 학습자의 듣기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보조 교수자료는 다음과 같은 교재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적절히 발췌하여 활용할 수 있다.

듣기기능 연습을 위한 보조 교수자료

- Nolasco (1988) *Listening : Elementary*
 Dunn & Gruber (1989) *Listening : Intermediate*
 Revell & Breary (1989) *Listening : Advanced*
 Richards (1990) *Listen carefully*
 Nunan (1995) *Atlas: Learning-Centered Communication* ①, ②, ③

위의 교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청취이해력 숙달을 위한 일상생활 속에서
 서의 다양한 듣기활동 (tasks/activities for listening)을 연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몇가지 사례를 제시해본다.

Task 1

Listen. [Here is a list of the things George has to do on his lunch
 break].(omitted).

George is talking to Kathy on the telephone. What did he remember
 to do? What did he forget to do? Check[v] the things he remembered
 and make an X next to the things he forgot.

Task 2

[In fact, during his stay in France, Mr Lakes stayed in four different
 hotels. Each time he moved he rang his friend to say where he was,
 but she was out.]

Listen to the messages on the answerphone and match the
 information on the right to the hotels.

Hotel Belmont	Room 22
Hotel Templer	till Thursday
Hotel Beaux Arts	Lyon
Hilton Hotel	Orly Airport
	720 65 05
	Room 406
	Till Sunday
	Till Tuesday
	678 33 88

Activity 1

Listen to the doctor telling people what medicine to take. Write out
 what they have to take and how often each day. For example, if you

hear, 'Take two and a half teaspoons every morning and evening' write 2 tsp and x 2. If you hear, 'Take three of these tablets three times a day', write 3 tab and x 3.

How much or how many?

How often each day?

..... 2 1/2 tsp / 3 tab X 2 / X 3
1
2
3

Activity 2

Roy and Sylvia have a lot of things to do this weekend. Listen to them deciding which things they want to do. Put a tick in the correct column to show who does what.

	Roy	Sylvia	Leave till later
clean the bathroom	✓		
take out the rubbish			
go shopping			
clean the car			
vacuum the carpet			
clean the fridge			

VI. 결론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영어교육의 효율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 능력의 숙달이 필연적인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이것은 학교교육의 차원에서 만이 아니고 범사회적인 현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교육의 내실화 내지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이론제시 측면과 중등 영어교사의 교실수업현장 사이에 보다 유기적인 상호 연계성을 긴밀하게 작동시킴으로써 영어교육의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몇가지 주요 관련 사항들을 논의하면서 활동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단계의 활성화 방안이 있어서 영어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단계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속에 전체적인 통합단체로서의 활동이 필요함과 아울러 중등 영어교사들을 더욱 많이 참여시켜 살아있는 교육의 효과가 투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겠다.

둘째, 대학 어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내의 중등학교 교사·장학담당자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교수학습 과제들을 검토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창출하여 이를 교실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셋째, 대학에 재직하는 원어민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원어민 화자를 교사연수 및 수업활동에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영어교사 스스로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숙달시키며 동시에 영어 수업활동시에 학생들에게 흥미를 고조시키고 동기화를 고취해주며 의사소통 지향적인 수업활동 전개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종합해보면, 대학의 이론연구 및 전달자적 입장과 중등교육의 교실수업 담당자 사이에 총체적으로 「이론과 실제」라는 양측간에 보다 나은 학습의 극대화를 성취하고자 다양한 교수학습 내용(과제)을 통합적으로 「연구-토의-적용」절차를 거쳐 교실수업에 제시하고 다시 이러한 과정은 반복적으로 수정 변용되는 순환적인 연계성 속에서 영어학습의 성과가 점차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김덕기, 배두본, 김임득. (1992). 영어교육과 교육과정 모형. 「영어교육」 43, 3-63.
- 박용현 외 서울대 연구진. (1994). 사범대학 교육과정 표준모형 구성의 기본방향과 구성원칙. 「표준 교육과정모형 시안」.
- 신상순. (1994). 한국영어교육학회 30년사. 「영어교육」, 48, 1-16.
- 임병빈. (1994).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육의 발전방향. 「영어영문학연구」, 36, 519-542.
- Bachman, L.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rns, M.S. (1990). *Contexts of competence : Social and cultural considerations in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New York: Plenum Press.
- Broughton, G., Brumfit, C., Flavell, R., Hill, P. & Pincas, A. (1980).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2nd e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Brown, H.D. (198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2nd

-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Brown, H.D. (198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Dunn, V. & Gruber, D. (1989). *Listening: Ele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eeman, D. (1980). Teacher training,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A model of teaching and related strategies for language education. *TESOL Quarterly*, 23(1), 27-46.
-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Pride and Holmes (Eds.), *Sociolinguistics*. Penguin Books.
- Larsen-Freeman, D. (1987). Twenty-five years of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English Teaching Forum*, 25(4), 2-10.
- McCallum, G.P. (1980). *101 Word ga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kulecky, B.S. (1990). *Teaching reading skills*.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Nolasco, R. (1988). *Listening: Element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unan, D. (1995). *Atlas: Learning-centered communication*. 1, 2, 3. Boston, MA: Heinle & Heinle Publishers.
- Revell, J. & Breary, B. (1989). *Listening: Advanc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s, J.C. (1990). *Listen carefull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s, J.C. & Nunan, D. (eds.) (1993).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ddowson, H.G. (1984). *Explorations in applied 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Yule, G. & Tarone, E. (1990). Eliciting the performance of strategic competence. In Scarcella, Anderson, and Krashen. (Eds.), *Developing communicative competence in a second language*. New York: Newbury House Publishers.